

#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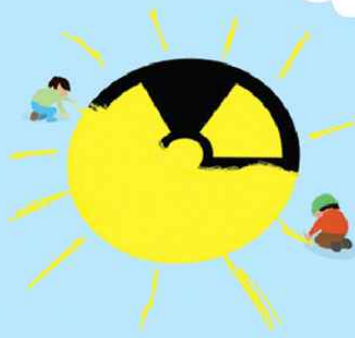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b>아름다운재단</b>	<a href="http://www.beautifulfund.org">www.beautifulfund.org</a>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b>알사한홍어</b>	<a href="http://alssahan.co.kr">alssahan.co.kr</a>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b>정성농장홍삼</b>	<a href="http://jeongseongfarm.com">jeongseongfarm.com</a>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b>비타샵</b>	<a href="http://vitashop.co.kr">vitashop.co.kr</a>
예쁜 구멍이 쫌!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b>미궁장사랑</b>	<a href="http://jangsarang.com">jangsarang.com</a>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b>수아비스화장품</b>	<a href="http://www.suavislab.com">www.suavislab.com</a>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b>풍무양고기</b>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b>매트리스엠</b>	<a href="http://www.mattressm.com">www.mattressm.com</a>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032-519-4800
<b>내피알</b>	<a href="http://nepr.co.kr">nepr.co.kr</a>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a href="https://facebook.com/tartfarm13">facebook.com/tartfarm13</a>
<b>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b>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b>이담채김치</b>	<a href="http://edamche.com">edamche.com</a>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b>메이드바이어스</b>	<a href="http://madebyus.co.kr">madebyus.co.kr</a>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b>전창걸의새싹망공차</b>	<a href="http://전창걸.com">전창걸.com</a>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b>좋은사람과플라워</b>	<a href="http://flowergood.co.kr">flowergood.co.kr</a>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b>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b>	<a href="http://cafe.daum.net/7000kim">cafe.daum.net/7000kim</a>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b>와우전복</b>	<a href="http://wowabalone.modoo.at">wowabalone.modoo.at</a>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b>연지연곰탕</b>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박근혜, 착각하지 말라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세월호 때는 정권 타도, 대통령 사퇴 주장이 힘을 얻지 못했다. 진상 규명이 부족해서? 하지만 국민은 압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러졌지만 '7시간의 비밀' 등 규명된 의혹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읽었습니다. 구조를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정권의 집요함에서 말입니다.

왜 그때는 지금처럼 나쁜 정권에 분노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시기가 집권 2년차라 '대통령 하야' 같은 구호가 부담스러웠으리라는 생각도 들지만, '좀 더 지켜보자'는 민심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잘못된 시그널을 준 점은 다 같이 통탄해 할 일입니다. 즉 무엇을 잘못해도 이 직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박근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녀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 아닙니까?

박근혜에게 묻습니다. 탄핵만 모면하면 될까요? 이미 '김용민브리핑'이 최초로 제안한 납세거부가 물밑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또 '김용민브리핑'이 전한 국립대 로스쿨 재학생 청취자의 의견대로 당신의 임기를 축소하는 원포인트 개헌 주장이 언론과 지식인 사이에서 폭넓게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대 숙명여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동맹휴업, 노동계에서도 동맹파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야당도 현재의 탄핵 무드를 타고 당신과 그 주변의 권력을 지탱할 모든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태세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점거농성, 누구에게 이로운가요? 구제불능 상태가 된 본인과 친박, 새누리당, 기득권집단, 보수 세력의 도미노 붕괴를 불러올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이 그냥 넘어간 것에 안도감을 갖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이 알아차렸다는 경각심은 없습니까?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당신에게 당신 스스로는 불행이 됐습니다.

이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국정공백 운운하며 깔도 안 되는 대통령이 그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집착하지 말아야하겠습니다. 세월호 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내쫓았다면 안전한 대한민국 재건은 이미 완성됐을지 모릅니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22일(화) 1부 | "탄핵 거처도 내년 4월 조기 대선 가능"

[오프닝]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 생각한다면 차, 착각말길

[김용민의 조건브리핑]

-외교장관 "석 달 더 협상" 의견 묵살 박근혜 '위안부 합의' 강행

-또 다른 의사·세월호 당일 대통령 진료? "기억 안 나"

-국민 지금 가장 궁금한 것 조사 "7시간 동안 뭐 했나"

-청와대 세월호 7시간 해명, 해경보고서와 일부 달라

-검찰 "박근혜, 협박한 거 아닌가"...뇌물죄로 기우는 양상

[뉴스듣기능력평가] 조선 현종 철종 시대의 수렴청정 관련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넘버3 유일호 주재 국무회의서 통과되는 한일군사정보협정

-메르켈 4선 도전...메르켈 닮고 싶어 한 박근혜와 극한 대조

[경제의 속살] 이원배 민중의소리 기자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은 협력업체 노동자를 고사시켜왔나

[공화국 논평] '부끄럽다'며 박동지 비난한 이명박에 대한 조치

수상한 결론

### 한겨레 차, 장관도 미루자던 위안부 합의 강행

지난해 12월28일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한 한일 정부 합의, 기억하시지? 그런데 주무 장관인 윤병세 외 교부 장관이 합의가 나오기 전에 석 달만 여유를 주면 개선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대통령 박근혜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가 빨리 타결하고 발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밝힌 것이다.

### 한겨레 국민연금, 삼성 합병에 3500억 손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은 청와대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압력에 의한 것이란 의혹이 있다. 이에 한겨레가 국민연금 회의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짚어 봤다. 먼저 국민연금은 삼성이 내놓은 비율로 합병을 한다면 두 회사의 주주인 국민연금이 자체 산출한 적정 비율보다 약 3500억 원이 손해를 알고 있었다. 또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 반대 입장을 천명하자 국민연금은 합병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삼성물산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이다. 배임이네.

'세월호 7시간' 어디 있었다

### JTBC '또 다른 의사' "4.16 진료? 기억 안나"

차음병원 김삼만 원장이 최순실 자매의 진료기록부에 '청' 혹은 '안개'를 기록한 것은 2014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세월호 참사를 전후로 최순실 자매를 진료했던 것은 다른 의사였다. 이 의사 역시 최순실 자매를 통해 대통령 박근혜를 대리 진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JTBC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진료했느냐는 질문을 했지만 해당 의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다.

### 한겨레 차, 고액 무허가 주사 공짜로 맞았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0년 대통령 박근혜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가 당시에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면 알앤엘바이오라는 업체에서 제조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일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확인한 결과 알앤엘바이오는 환자 한 명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의 치료비를 받고 줄기세포를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알앤엘바이오가 이 시술을 합법화하기 위한 로비 목적으로 유력 정치인들에게 무료로 시술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그 중 한명이 박근혜였던 셈이다. 뇌물이다.

### 국민일보 "박근혜는 국민에 부끄럽지 않나"

국민일보가 대통령 박근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설문조사했다. 국민들이 박근혜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해명은 단연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박근혜가 국정농단 사태를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 노컷뉴스 靑 '7시간' 해명, 해경보고서와 달라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자료와 앞뒤 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근혜는 배가 거의 침몰한 상태에서 철저한 구조를 지시했다. 청와대의 해명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박근혜는 4시간 27분 동안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캘수룩 김기춘

### 한국일보 국정농단에 드리운 김기춘의 그림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역할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태환 선수를 협박하기도 했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김기춘의 지시로 최순실과 만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 수첩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정리를 김기춘이 막후에서 지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 중앙일보 김기춘, 87년부터 최태민 일가 만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태민 일가와 이미 30년 전에 알고 지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육영재단 전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87년 육영재단에 분규가 일어났을 당시 김기춘이 재단에 수차례 방문한 일이 있다고 한다. 또한 김기춘이 그 시절부터 최태민 일가를 돌봐줬다는 건 당시 육영재단 직원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모른다고 김기춘은 우긴다.



오늘을 읽는 책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파커 J. 파머 지음 | 김찬호 옮김 | 글항아리

**박근혜·최순실 ‘너는 내 운명’**

**세계일보** 차 선거에 최순실 일가 2억5천 지원

대통령 박근혜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1998년 보궐선거에서 최순실 일가가 거액을 지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년 가까이 최순실 일가의 차량을 운전했던 김 모 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98년 보궐선거 직전 최순실의 모친 임선이의 지시로 박근혜의 아파트에 2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0년 총선에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최순실 일가와 임선이는 물론 정윤희가 박근혜의 선거를 도왔다고 덧붙였다.

**東亞日報** 차정부 내각 구성에도 최순실 개입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가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초대 내각과 참모 인선을 최순실과 논의하고 결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최순실은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에 대한 동향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수시로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세계 나오네**

**중영일보** 檢,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하면 협박”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가 53개 대기업에 774억 원을 출연해 달라고 한 행위가 일종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하는 게 협박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 또한 검찰은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뇌물죄가 성립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뇌물죄로 박근혜 조이는 검찰

그래서 한겨레에 실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 박근혜를 정 조준한 ‘뇌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기사에 눈길이 간다. 박근혜는 KD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납품계약을 수시로 체크했다. 이곳은 정유라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다. 또한 최순실은 계약 체결 전후로 이 회사 대표에게서 샤넬백과 현금 등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게 하면 성립한다.

**탄핵 가능할까?**

**중영일보** 박근혜 탄핵, 노무현 때와는 다르다

중영일보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알아봤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상황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된 때와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며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실정법 위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박근혜를 피의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역주행**

**중영일보** ‘MB 미소금융’은 기업이 직접 운영

대통령 박근혜의 변호인 유명하 변호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한 공익사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든 것이 MB 정부 때의 미소금융재단이다. 하지만 김승유 전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미소금융은 개별 기업들이 재단을 직접 만들어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MB가 기본 많이 나뉠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성격이 비슷한 것은 전두환이 세운 일해재단이다. 일해재단은 대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냈다.

**국민일보** ‘진실한 사람’ 박근혜의 말 뒤집기

대통령 박근혜가 지난주부터 들은 국정 재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결정적 장면은 검찰 조사 거부였다. 박근혜는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유명하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국회 추천 총리 문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거짓말쟁이 대통령, 국민일보가 상세히 전했다.

**오늘의 칼럼**

**한국일보** “탄핵으로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칼럼 “탄핵으로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이다.

▶▶▶ 다음 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속셈은 시간 끌기다. 탄핵을 하더라도 헌법 재판소 심판에만 최장 6개월이 걸리고, 특검도 4개월이 소요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만 버티면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 사이 권력을 동원해 촛불시위 분열공작을 벌이고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리면서 국면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꼼수는 헛수고로 끝날 공산이 크다. 1차 관문인 탄핵안 국회통과에 필요한 새누리당 의원 29명 확보는 의외로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에 동의한 의원이 32명이고 불참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늘어난다. 앞서 ‘최순실 특검법’ 국회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은 58명이나 됐다.

헌재 심판 기간도 단축시킬 여지가 충분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주심을 맡은 주선희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어서 헌재도 공부를 하면서 심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당시 심판에 걸린 기간은 64일이다.

내년 1월 말 헌재 소장 퇴임을 앞둔 상황까지 헌재가 고려해 서두른다면 50일 정도면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보수적 색채가 짙은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우려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보수적인 재판관들이라고 하더라도 법리를 우선하는 법관인지라 탄핵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재는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향후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다섯 가지 사유를 명시한 바 있다. 뇌물수수·공금 횡령 등 부정부패, 명백히 국익을 훼손한 경우, 다른 헌법기관 권한을 침해한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한 국민 탄압, 국가권력을 이용한 부정선거 등이다. 단 한 가지 기준만 해당돼도 탄핵 사유가 되는데 박대통령은 얼핏 보기만 해도 여러 사유에 해당한다.

탄핵안을 서두르면 내년 봄이 오기 전 탄핵이 결정돼 4월경에는 대선을 치를 수 있다. 그때까지 시민들은 촛불을 꺼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 국민이나? 대통령이나?

### 박원순 서울시장 국무회의 발언



지난 11월 12일, 11월 19일 광화문에 모인 100만 촛불의 민심은 더 이상 대통령이 국정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퇴진해야 함을 엄중히 명령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제 검찰수사 발표에 따라 이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피의자로서 이미 국정 운영을 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은 지난 11월 14일 국방부가 양국 간 실무협의를 마치고 가시명이 체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쫓기듯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분협정안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에 도 말실추진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결국 국 비준 1시간 전에 일본에 서명연기를 통해 협정 체결이 무산되는 외교적 촌극을 빚은 사안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 문제 일방적 합의 등 사회적 열망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을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결정, 추진해왔고, 그 파장과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국주의 침략의 기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과거청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협정을 국민적 공감대마저 결여된 채 서둘러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한민구 장관 자신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국방위 등에서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야3당은 국방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30일 제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나 국방 문제일수록 국민의 사의 통합이나 합의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더욱 단단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 많은 종교기관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이 협정이 우리가 받을 건 없고 줄 것만 많다. 매국적 행위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상 초유의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주도하는 본 협정 체결은 분노하는 민심

을 자극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정부는 본 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협정 체결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엄중한 사태인지를 직시해 본 협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의 책임이 큼니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여러분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이 시국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을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 중대한 시국과 국가적 위기에 무엇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인지 깊이 숙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촛불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르게 전달해 조기에 퇴진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분노에 들끓는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고 대통령 본인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그런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었습니까? 국무위원 여러분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이제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한 국민적 지지와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본인이 공모한 헌법유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또한 오늘은 이 본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심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 이자 이미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관여를 통한 헌정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본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함은 물론 특검 이전까지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국민적 분노를 해소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어찌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하고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는 내각이